

[서 평]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전경수, 민속원, 2010년 6월 발행)

김창민*

제주도는 참 독특한 지역이다. 우선 자연지리적 경관이 여느 한국과는 다르다. '섬 하나, 산 하나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제주도는 한라산이라는 화산을 근거로 이루어진 섬이며 따라서 이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이루어진 문화가 여느 한국과 다르다. 그러나 이 독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제주도의 특수성은 설명될 수 있지만 보편성은 무시되기 쉽다. 제주도를 바라보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이 조화를 일룰 때 제주도는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전경수 교수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탐라·제주와 관련하여 구두 또는 논문으로 발표한 글을 정리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탐라학 서설은 탐라의 신화, 선주호와 주호의 관계, 벽랑국의 성격 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주 이전의

*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탐라를 다룬 것으로서 제주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부 제주학 서설은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의 개념과 연구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 민속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제주도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동안 발표된 논문을 정리한 것으로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책을 탐라에 관한 것과 제주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구성함으로써 체계를 갖추려고 하였다. 그 결과 제1부는 역사적 주제와 문헌과 유물을 통한 논증으로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고 제2부는 제주학과 제주민속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책은 실증적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보다 제주 연구와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다. 즉,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제주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제주 연구에서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명으로서 탐라와 제주를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라는 용어는 육지의 관점으로서 제주를 대상화 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탐라라는 용어를 적극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또한 삼성신화라는 용어도 탐라 개국 신화를 성씨의 성립 신화로 폄하한 것으로서 을라신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현학 대신 고금학을, 신화 대신 선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개념은 현상을 이해하는 수단이므로 개념에 대한 필자의 강조는 제주의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개념의 사용으로 현상이 왜곡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역의 관점으로 제주를 연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를 한반도의 관점에서 보면 주변이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동중국해의 중심이 된다. 제주라는 용어 자체도 중심부의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서 지역의 관점인 탐라라는 용어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필자는 제주의 문화 현상은 제주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전국적인 규모의 제주도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되었지만 그 보고서나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제주인이 주체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못하고 중심부 인사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즉, 필자는 제주도를 지역의 관점에서 인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지역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현상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식의 주체가 바뀌면 인식의 대상이 가지는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한반도의 관점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셋째는 제주 연구는 통합과학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제주 연구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연구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여러 학문이 동시에 참여하는 통합과학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과학문은 특정한 하나의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전체를 인식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제주도라는 지역은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과학은 지역의 현안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용성을 지향하고 있다. 제주학이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와 제주사람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시사점은 필자는 제주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비교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일관되게 제주도를 오키나와와 비교하고 있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인식론상의 비교를 할 수도 있다. 필자는 때에 따라서는 제주와 오키나와를 직접 비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제주의 현상을 오키나와와 인식론적으로 비교하고 있기도 한다. 비교는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게 해석된다. 오키나와와 제주를 비교하는 필자는 제주를 주변 사회, 섬 사회라는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제주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의 방법론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인류학자인 필자는 이 책에서 현지연구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1부에서는 주로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를 이용하여 논증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개념에 대한 논의와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가 다룬 문헌 연구와 유물을 통한 논증은 매우 치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적 현지 연구가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주 연구를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필자가 제시한 방법론과 실천 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사례를 보여주었어야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제주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제주학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학에 대한 개념 정리와 방법론의 제시는 향후 제주학 연구에 매진하게 될 후학들에게 지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